

[가정공동체축제] 결혼의 중요성

[본문: 엠 5:21~33]

짐 그레함 목사 / 1999 / 페이지 수: 5

결혼생활의 변화

결혼생활에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서구사회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혼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하는 행동중의 하나가 바로 이혼이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이혼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지금 보통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남녀가 결혼 이전에 동거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보통의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것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피임이 절대적이 된 것입니다. 물론 계획 하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생활을 동반자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과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도 아름답고 깊은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임의 기술이나 도구들이 발달함에 따라 가벼운 성관계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러오면서 더 이상 처녀 총각으로 오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결혼이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점점 이벤트나 행사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사회에서 발견한 다섯 번째 변화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교육과 사회, 직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편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적인 편견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편견도 나쁘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부부로서 강조되기 보다는 각각의 개인으로 더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아홉번째로 발견한 것은 외도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쓰고있는 언어의 표현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화는 모든 남녀가 가정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강조점은 우리가 서구에 살든지 동양에 살든지 간에, 우리 사회의 변화의 폭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시면 사용설명서를 읽습니다.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설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혼식은 결혼이 아니다. 언젠가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의 시작이 바로 결혼식이다. 결혼식 날 부부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의 열쇠가 아니라 빈 공터와 약간의 정원도구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구를 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제가 에베소서 5장 21~33절을 택한 것은 바로 이 본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일반적으로 네가지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권리에 대해 말씀하시기보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생활에서 해야하는 의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각 부부가 갖는 가치나 지위의 차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다른 책임감과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는 십자가 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지음받은 모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인가?

중요한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과연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서로 동역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셔서 서로 동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 동반자의 관계야말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리스천의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간의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결혼관은 ‘동반자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산’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탄은 어느 것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선한 것을 보기만 하면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남녀 간에 있는 아름답고 순결한 성을 파괴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파괴되고 문란한 성이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는 것이며, 서로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결합되는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며 순결하게 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답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공급을 받아 자라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결혼 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야말로 결혼생활의 결과입니다.

이 세가지가 ‘크리스천의 결혼’에 대한 중요한 답변입니다.

사랑의 세 가지 요소

결혼 전에 두 몸을 갖고, 두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 후에는 한 몸과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사람들은 아파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수학은 특이합니다. ‘1+1=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의 위치와 권력

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가 서로 다른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23절에서 결혼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리더십은 남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2~24절을 보면 '교회와 같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부부간에 갖는 책임감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에 갖는 책임감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그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결혼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무시한다면 결혼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25~3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인도해가는 책임감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도자는 더 큰 책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해당되는 구절은 세 구절이지만, 남편에게 해당되는 구절은 더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는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이제 남편들이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남편들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세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이기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며,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라는 단서가 붙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정복될 수 없는 선행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파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확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외침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삶을 교회를 위해 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순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교회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내 스

스로의 선택으로 당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계발하는 데에 내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생활이 아름다워지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당신을 사랑할 것이며, 만약에 당신이 실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나 자신을 헌신할 것입니다.'라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혼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위에 우리의 결혼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